

---

# 모 두 말 씀

---

2025. 9. 23.(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 대 영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금융산업의 디지털 발전은  
수많은 보안사고와 대응으로 이루어진  
“침해와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09.7월 디도스 공격, ‘11.4월 농협 전산망 마비,  
‘14.1월 카드3사 정보유출, ‘18.1월 KT 화재사태 등  
끊임없는 전산보안·정보유출 사고가 이어져 왔고  
그때마다 사태 수습과 제도 보완을 반복하며,  
지금의 금융보안·정보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왔습니다.

눈부시게 빠른 ‘AI 도약의 시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AI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근무환경 등  
사실상 모든 업무가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가운데

해킹 세력의 조직화, 범행방식 고도화 등으로  
침해위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치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하였습니다.

최근 일련의 전산침해 사태에서 보듯  
작은 보안실수·허점만으로도  
견잡을 수 없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어렵게 쌓은 금융의 신뢰성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위협 앞에서,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과거 제도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침해사고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튼튼한 제도적 기반하에  
금융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가 뜻을 모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근본적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그 어떤 위험요인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누구도 믿지 않는다)” 원칙에 입각한  
전사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금융회사에서는 CEO 책임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에서  
최근 일련의 침해사고에서 나타난  
취약 요인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해 소개해 주실 것이나,  
이외에도 문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의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꼼꼼히 지도·감독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상시적·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금융회사의 셀 수 없이 많은 전산장비에 대해  
수시로 장비교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져  
새로운 취약요인이 매주·매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점검 항목만 준수하면 된다”는 인식으로는  
현실의 침해위협에 결코 대응할 수 없습니다.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과 함께  
CEO 스스로 보안 관리를 “본인의 업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챙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서비스 복구와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비상 대응 체계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침해사고 예방에 못지않게,  
불가피하게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침해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세세한 상황별로 대처요령을 담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치밀하게 만들어 주시고  
금감원과 보안원은  
그 내용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해킹을 당한 기업과 해킹을 당할 기업  
두 종류의 기업 뿐이다(로버트 물러 전 FBI 국장)”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금융회사 CEO분들은

해킹사고가 모든 금융회사 목전에 닥쳐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신속한 전수 점검과 내부 관리체계 마련을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빠르게 진화하는 해킹 위협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공동대응한다는 자세로  
사안별로 긴밀한 소통과 협업도 당부드립니다.

금융위원회도 他 정부부처·유관기관 등과 함께  
AI 시대의 해킹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